

해남 '전남 최다 후보' ... 진도, 현 조합장·신인 각축

총19개선거구·47명후보 맞붙어 진도, 현직에 '신세력' 도전장 리턴매치·다자구도 등 '빅매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고구마 최다 생산지인 해남지역 선거 열기가 뜨겁다.

해남군에서는 14곳 조합장 선거에 3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내밀어 전남 도내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 선거 때마다 적은 표차로 초접전을 펼쳤던 지역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관심 집중되는 선거구가 많다. 그 중 현 산이농협, 현 전·현직 조합장 간 네번째 맞대결이 성사돼 이목을 끈다.

진도에서는 다년간 경험을 쌓은 현 조합장에 오랜 기간 민심을 다져온 '뉴페이스'가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해남-14개조합·38명 출사표

해남은 14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3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 도내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그만큼 각 선거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산이농협은 전남 내 최다 후보자인 5명이 출사표를 내밀어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손꼽힌다.

계곡농협은 박희재 전 계곡농협 임원, 정광일 전 계곡농협 감사, 임현국 전 계곡농협 상무, 진수열 전 계곡농협 이사 등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간 대결이 성사됐다. 각각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이들인 만큼 판세 역시 안갯속이다.

땅끝농협에서는 김진익 전 땅끝농협 과장과 송영석 전 땅끝농협 전무가 맞붙는다. 땅끝농협은 대형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한 운용으로 지난해 대출금 연체율이 낮고 자산 건전성이 우수한 농·축협에 수여하는 인종인 클린뱅크 그랑프리를 달성한 바 있다.

문내농협의 선거구도 역시 땅끝농협과 비슷하다. 현 조합장 없이 김석자 전 문내농협상무와 김철규 전 전남농협벼협회장이 도전한다. 해남 내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김석자 전 상무가 과연 김철규 협회장을 제치고 해남군 최초 여성 조합장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이농협도 다자구도 대결이 펼쳐진다. 전 조합장의 재선을 저지했던 김애수 현 산이농협 조합장의 거센 방어에 4명의 후보자가 공략에 나섰다. 현역 타도를 노리는 후보는 강철홍 산이면주민자치위원장, 임길수 현해남진도원도민주당부위원장, 박정주 전 산이농협, 이사 박정문 전 산이농협 이사 등이다.

옥천농협은 윤치영 현 조합장에 이기춘 전 옥천농협 감사, 박재현 전 옥천농협 조합장이 경쟁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 윤

치영 현 조합장에게 3선 저지를 당했던 박재현 전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설욕을 치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

해남농협은 장승영 현 농협중앙회 이사와 민삼홍 전 이·감사가 대결한다.

현산농협은 이육근 현 현산농협 조합장에 강성호 전 현산농협 조합장이 맞붙는다. 이번 선거로 두 후보간 네번째 대결이 성사됐으며 초박빙 승부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산농협에서는 4파전이 펼쳐진다. 김명훈 전 화산농협 비상임감사, 최형인 전 화산농협 이·감사, 오상진 전 농협대명예교수, 김하락 전 경찰공무원이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다자구도로 인한 표 분산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계산이 분주한 상황이다.

화원농협은 양강구도로 펼쳐진다. 서정원 현 화원농협 조합장에 김복철 전 화원농협 이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장 자리를 확정 지었던 황산농협에서는 올해 3파전이 펼쳐진다. 현 김경재 황산농협 조합장에 장재일 전 황산농협 직원, 윤성일 전 황산농협 감사가 맞붙는다.

해남수협 역시 3파전이다. 김중현 현 해남수협조정위원, 최영봉 전 해남수협 감사, 박병찬 해남수협 이사가 대결한다.

해남군 산림조합도 선거 양상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출사표를 내민 4명의 후보자는 박동인 전 해남군의원, 김홍술 전 해남산림조합 이사, 안석열 전 해남산림조합 전무, 안현 해남산림조합 직원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북평농협은 박순봉 전 감사가, 해남진도축협은 한중희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 자리를 낙점했다.

●진도-5개 조합 9명 도전장

진도는 5개 조합에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5개 중 4개 조합에서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이들을 추격하는 후보자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라 관심을 집중시킨다.

서진도농협은 1:1 대결구도다. 한옥석 현 서진도농협 조합장에 강성민 전 서진도농협 감사가 도전한다.

진도농협 역시 양강 구도 대결이 펼쳐진다. 노춘성 현 진도농협 조합장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박기태 전 진도농협 이사가 나섰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한 진도수협에서는 3파전이 예고됐다. 김기영 현 진도수협 조합장과 김명기 현 (주)역대 대표이사, 조윤재 전 진도수협비상임 이사가 경쟁을 벌인다.

선진농협은 정해민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진도군 산림조합에서는 현 진도산림조합에 재직 중인 허용범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해남·진도 출마자

해남 계곡농협 1 박희재 (71) 관주소출 전 계곡농협 임원 2 정광일 (66) 초당대출 전 계곡농협 감사 3 임현국 (60) 농협대출 전 계곡농협 상무 4 진수열 (59) 해남고출 전 계곡농협 이사	땅끝농협 1 김진익 (59) 송지중고출 전 땅끝농협 과장 2 송영석 (57) 송지중고출 전 땅끝농협 전무	문내농협
1 김석자 (60) 목포과학교출 전 문내농협 상무 2 김철규 (58) 종일고출 전 전남농협벼협회장	북평농협 박순봉 (64) 목포과학교출 전 북평농협이·감사	산이농협 1 김애수 (63) 초당대출 현 산이농협조합장 2 강철홍 (62) 순천대 대학원 박사 수료 현 산이면주민자치위원장 3 임길수 (62) 초당대출 현 해남진도원도민주당부위원장 4 박정주 (56) 송원실업전문대출 전 산이농협 이사
5 박정문 (60) 해남고출 전 산이농협 이사	옥천농협 1 윤치영 (63) 호남대 대학원 석사 현 옥천농협 조합장	해남농협 1 장승영 (66) 세한대 대학원 석사 현 농협중앙회 이사 2 민삼홍 (54) 서강정보대출 전 현산농협 이·감사
1 이육근 (68) 고구려대출 현 현산농협 조합장 2 강성호 (66) 석산고출 전 현산농협조합장	화산농협 1 김명훈 (48) 농협대출 전 화산농협 비상임감사 2 최형인 (62) 동산전문대출 전 화산농협 이·감사 3 오상진 (67) 남부대 재직 전 농협대명예교수	화원농협 4 김하락 (67) 고구려대 재직 전 화산중문회회장 1 김복철 (62) 세한대 대학원 석사 전 화원농협 이사
2 서정원 (61) 경희사이버대출 현 화원농협 조합장	황산농협 1 김경재 (60) 성민경상전문대출 현 황산농협 조합장 2 장재일 (49) 황산고출 전 황산농협 기능과장 대리 3 윤성일 (62) 목포과학교출 전 황산농협 감사	해남진도축협 한중희 (67) 동아인재대출 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2 최영봉 (61) 목포용일고출 전 해남군수협 감사	해남산림조합 1 박동인 (69) 동아인재대출 전 해남군 의원 2 김홍술 (69) 해남고 중퇴 전 해남산림조합 이사 3 안석열 (60) 서강실업전문대출 전 해남산림조합 전무 4 안현 (55) 해남고출 전 해남산림조합 근무	해남수협 1 김중현 (61) 방통대 재직 현 해남수협조정위원
진도 서진도농협 1 강성민 (58) 진도실업고출 전 서진도농협 감사 2 한옥석 (61) 농협대출 현 서진도농협 조합장	선진농협 정해민 (63) 석산고출 현 선진농협 조합장	진도농협 1 박기태 (55) 경희사이버대출 전 진도농협 이사 2 노춘성 (60) 진도고출 현 진도농협 조합장
1 김명기 (61) (주)역대 대표이사 2 조윤재 (60) 세한대출 전 진도수협 비상임이사 3 김기영 (60) 세한대출 현 진도수협 조합장	진도산림조합 허용범 (54) 진도고출 현 진도산림조합 재직	진도수협 기호 이름(나이) 학력 경력

전남선관위, 금품제공 등 신고자 5명 3650만원 포상금

선거법 위반 4명 경찰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건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했다.

2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 모 조

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해 고발됐다.

나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지난해 10월27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

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C씨의 배우자는 C씨와 함께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함께 고발됐다. C씨는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을 신고한 신고자

5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는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특별 단속으로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뺑뺑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